

# 해양경찰정비창, 상생 약속...지역발전 동력 자리매김

### 전체 계약 49% 전남 지역 업체 발주 식자재·인재 채용 등 64억 낙수 효과 기술 이전 등 '상생형 협력 모델' 박차

해양경찰정비창이 지역사회와의 균전한 상생을 약속하며 닦은 울린지 60여일 만에 수십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전남 지역 발전의 든든한 새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0일 해양경찰정비창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준공 이후 총 233건의 계약 및 위탁 용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3건(약 49%)을 전남권 지역 업체에 발주했다.

금액으로는 약 58억원 규모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목포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2건, 순천 9건, 영암 8건, 해남 3건 등 전남 전역에 고르게 기회가 돌아갔다.

지역 내 직접 소비도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지역 내 집행액 약 4억7천만원을 비롯해, 구내식당 지역 식자재 활용 4천400만원, 지역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7천700만원 등 제감 가능한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약 64억원 규모의 지역 경제 기여 효과가 발생했으며, 더불어 10여척의 경비함정 정비 기간 동안 수많은 승조원들이 지역에 장기 체류하며 숙박과 외식, 관광 등 소비 활동을 이어간 점도 상권 활성화에 큰 몫을 했다.

다만 단기간의 눈부신 성과 속에서도 지역 업체의 자생력 강화라는 숙제도 남겼다.

최근 선박 도색 작업 입찰에서 부산 소재 업체

가 낙찰된 사례가 대표적으로, 정비창 측은 지역 기업들이 그동안 대형 조선소 중심의 하청·재하도급 구조에 익숙해져, 주도적인 공공기관 입찰 참여나 까다로운 계약 요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비창은 지역 업체의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두차례에 걸쳐 지역 업체 초청 설명회와 기업 홍보 세미나를 열어 수주 전략과 향후 사업 방향을 맞춤형으로 안내했다.

또한 정비창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지역 업체

에 이전하고,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는 현 대삼호중공업, STX 등 대형 조선 기업과 연계해 보완하는 '상생형 기술 협력 모델'도 적극 추진 중이다.

안교진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소통 창구를 상시 열어두고, 지역 제한 조건을 엄격히 적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전략적인 정비창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낙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 완도군 기후 위기 극복 해조류 '블루카본' 가치 조명

### 오는 4일 생활문화센터 포럼 개최

### 탄소 흡수원 국제 인증·비전 모색

완도군이 전 지구적 기후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해조류 '블루카본'의 가치를 조명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 학들과 머리를 맞댄다.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인 오는 5월4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블루카본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해조류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 능력을 알리고 국제적인 탄소 흡수원 인증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정부, 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에너지부 원장을 역임한 에블린 엔 왕(Evelyn N. Wang) MIT 에너지·기후 부총장이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고, 세인 코신스키(Shane Kosinski) 이사 역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 참석한다.

또한 국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지난해 완도군에서 개최된 블루카본 관련 포럼 모습.

(완도군 제공)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방법론 저자인 한림대 김승도 교수, 군산대 권봉오 교수도 자리해 해조류 블루카본의 국제 인증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신우철 완도군수가 직접 좌장을 맡으며,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 등도 참여해 수산업 기후 대응과 탄소 배출권 등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군은 포럼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 '블루카본'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포럼은 완도군 선도해운 해조류 블루카본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다"며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등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지리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영광군, 인구감소 극복 마스터플랜 '시동'

### 5개년 기본계획·연구 용역 착수

### 지역활력 증대 등 4대 방향 제시

영광군이 지역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구축에 착수했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영광군의 인구 변화 여건을 정밀 진단하고 핵심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로컬 생태계, 지속가능한 영광 라이프케어 시티'를 비전으로 ▲지역 활력 증대 ▲돌봄·정주 환경 고도화 ▲일자리 창출 ▲미래 인재 육성 등 4대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내년도 기금 확보와 연계해 에너지 자립, 스마트 관광·교육·헬스케어, 관계 인구 창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 사업 발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부서별 협업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내년도 기금 투자계획서를, 8월 중 5개년 기본계획안을 전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광만의 맞춤형 인구 정책과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해 소멸 위기 극복의 든든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군은 지난달 29일 읍 전천후계이트빌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운영했다. 사진은 연세대 스포츠재활연구소의 근골격계 맞춤 운동 처방과 정밀 시력 검사·돌보기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 (함평군 제공)

## 함평군,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지원

함평군은 30일 "전남 함평읍 전천후계이트빌에서 지역 농업인과 고령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평군, 농협중앙회가 주최하고 함평농협이 주관한 사업은 지리적 여건 탓에 병원 방문이 힘든 주민들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각 분야 전문 기관의 총출동 의료 지원이 펼쳐졌으며,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양·한방 협진과 영양수액 처방을, 군 보건소가 치매 조기 예방 검진을 진행했다.

이어 연세대 스포츠재활연구소의 근골격계 맞춤 운동 처방과 정밀 시력 검사 및 돌보기 지

원이 더해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진료 후에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한방 상비약(소화제·파스)과 보냉팩 등을 배부해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함평군 관계자는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건강 지킴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영규 기자

## 해남군, 더위 날릴 '바닥·음악분수' 가동

### 2일 고천암생태공원서

해남군은 30일 "이른 더위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의 나들이객들에게 시원한 휴식을 선사할 관내 주요 분수 시설을 일제히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내 바닥분수가 오는 5월2일 가장 먼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낸다.



이와 함께 해남공룡박물관 분관 앞 물놀이 체험장과 야외 놀이터 바닥분수도 봄 축제 기간 동안 문을 열어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시원한 바닥분수가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힐링 명소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현장 요원 배치와 간단한 수질 유지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운영은 8월3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 하루 3회(오전 11시, 오후 1시·3시) 가동되며, 평일은 수질 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해남읍의 대표 야간 볼거리인 군민광장 음악분수도 5월6일부터 10월까지 매일 오후 8시 20분부터 40분간 화려한 조명과 함께 군민을 맞이한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7-8월에는 어린이 물놀이를 위해 낮 시간대에도 5회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 진도군, 道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대상'

### 신혜민 아망프 농장 대표

진도군은 "아망프 농장의 신혜민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최근 2026년 전남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분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목한 경영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전남 지역 각 시·군을 대표하는 농업인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아망프농장을 재배하는 신 대표는 과감한 첨단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철저한 데이터 기반 경영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극대화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신 대표는 오는 6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전국 대회에 전남 대표 자격으로 출전해 진도 농업의 경쟁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역 농업인의 탐방을 스마트농업 기술이 어우러져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95억 원을 투입, 500ha 규모의 탄탄한 미래 농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 강진군, 다중이용시설 '사물주소판' 설치

### 141곳 대상 긴급상황 대응 강화

강진군은 "최근 주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건물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웠던 다중이용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 외의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군은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무더위쉼터와 놀이쉼터 등 2종의 대상 시설물에 총 141개의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군은 버스정류장, 공중전화, 우체통 등 29종의 다중이용시설에 총 865

건의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462곳에 주소판을 설치했다.

향후 자동심장충격기(AED), 무인민원발급기, 어린이보호구역 CCTV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지속 확대해 교통·안전·복지 등 다방면의 생활 밀착형 행정 기반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시설물에 명확한 주소가 부여돼 일상 속 위치 찾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특히 화재 등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제공으로 신속한 대처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